

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출처불명 득표율’ 고발 난무

민형배 “유포 가담 7명 확인 고발 방침” 신정훈 “거짓 카드뉴스 배포 민형배 고발” 민주당 선관위 “적발 시 예외없이 무관용”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결과 발표 이후 각 후보자 득표율을 담은 출처 불명의 ‘예비경선 결과’ 문건이 유포된 것과 관련,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 측이 문건 유포자 7명을 고발키로 한 데 이어, 신정훈 국회의원 측은 “교묘한 편집으로 거짓 카드뉴스를 배포했다”며 민형배 의원을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 경선사무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7명에 대한 증거자료 채증을 마쳤다”며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관련자 전원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이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한 직후 후보별 권리당원 투표 득표율과 순위를 적시한 문건이 온라인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민주당은 당규 제43조의4 제5항에 따라 예비경선 후보자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경선 직후 불거진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예비경선 결과 발표 직후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득표율 문자가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이는 중앙당 선관위의 ‘경선결과 비공개’ 방침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 테러이자 당원들의 선택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라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당 지도부에 엄중하고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득표율 공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경선 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 득표율 문자메시지를 발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신정훈 의원 경선 캠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형배 의원 역시 여론을 호도하는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며 “민 의원의 카드뉴스에 대한 문제점을 당 선관위에 고발한다”고 민 의원을 직격했다.

신 의원 측은 “민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적하면서 선거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조사해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정작 민 의원은 ‘예비경선 통과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3.4%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처럼 조작된 카드뉴스를 퍼날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크게 쓰여진 제목과 그래프만 보면 예비경선 결과 압도적 1위를 달

성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조작 논란을 의식해 카드 아래쪽에 매우 작은 글씨로 예비경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1월31일자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를 교묘히 편집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 측은 “오늘 오후 시·도민들에게 잇따라 보내진 민형배 지지자 발 문자에서는 ‘압도적 지지 고맙습니다’라는 문구로 마치 민 후보가 1등인양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민 의원의 카드뉴스에 대한 문제점을 당 선관위에 고발한다”며 “교묘한 편집기술과 문구로 시·도민 여론을 호도하고 기만한 민 의원에게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변은진·양시원 기자

신정훈 “옛 국군병원 문화콘텐츠 플랫폼화”

XR·메타버스 결합 등 3대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의원이 22일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광주국군통합병원’ 부지를 글로벌 문화콘텐츠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신 의원은 “옛 광주국군통합병원은 5·18의 아픔을 치유하는 성지를 넘어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핵심 기지가 돼야 한다”며 “역사적 현장에 첨단 기술과 예술을 덧입혀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문화 엔지니어로 가동시키겠다”고 강조했다.

3대 핵심 과제 ▲‘K-콘텐츠 크리에이티브

레지던시’ 조성 ▲실감형 역사 체험(XR) 및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랜드마크화 및 야간 경관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신 의원은 문화예술인 처우 개선 5대 정책으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연 180만~200만원 수준) ▲통합 예술인 복지시스템 구축 ▲지역 연계형 ‘문화예술 공공일자리 1만개 프로젝트’ 추진 ▲유류 공간을 활용한 창작 클러스터 및 레지던시 확대 ▲해외 교류 및 공동 창작 지원을 위한 ‘광주·전남 예술인 글로벌 허브’ 구축을 약속했다.

/변은진 기자



민주당, 地選 후보 공천 설명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민형배 “전남·광주 물순환도시 대전환”

물순환 회복 6대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22일 전남·광주를 ‘물순환도시’로 전환하는 종합 물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물 문제는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 농업의 생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시대에 맞는 물관리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전남·광주는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기후 환경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기록적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7천787ha에 달했으며 다수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민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 전략으로 ▲광주 ‘도심 물순환 회복 도시’ 전환 ▲나주·순천·담양·곡성·구례 ‘유역형 홍수 대응 체계’ 구축 ▲함평·무안·영암·해남·강진·장흥·고흥·보성 농업용수 안전망 구축 ▲목포·도서 지역 식수 안전 체계 강화 ▲여수·광양 산업용수 국가전략 도시 재설계 ▲전남·광주 ‘통합 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도시·가능별로 나뉜 물 정책으로는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할 수 없다”며 “복구 중심 행정에서 예방 중심 투자로, 개별 대응에서 유역 단위 통합관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김영록 “1%대 초저금리 대출 1조 확대” 공약

‘대환대출’ 2천500억 신규 조성 등 소기업·소상공인 2만곳 추가 혜택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특혜(특별히 험내라) 상품’을 대폭 확대,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신용보증재단은 올해 광주·전남 각 2천억원씩 총 4천억원 규모의 1%대 소기업·소상공인 대출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3천500억원을 더해 대출 규모를 총 7천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특히 이 대출 상품에 대한 상환기일이 도래한 취약계층(4·8등급 저신용자)을 위해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대환 대출’을 2천500억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중에서 3~4%에 달하는 소상공인 등 대출 금리를 1%대로 낮춰 4천억원을 대출하기 위해 광주 37억원, 전남 68억원 등 총 105억원의 금리보전 비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1만3천여개 업체(평균 3천만원 대출)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광주와 전남 모두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대출 경쟁이 매우 심한 편이다.

김 예비후보의 구상처럼 대출 규모를 1조원

으로 확대하면 2만여개 업체가 추가로 초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보전 예산 21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김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창업·보존·컨설팅·재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를 광주권·동부권·서부권·남부권 등에 순차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대 초저금리 대출을 1조원 규모로 대폭 늘려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민생을 좀 더 가까이 보듬는 전남광주특별시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재정 기자

since 1978

제46회 The 46th jindo Miracle Sea Road Festival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26. 4. 17. 금 - 4. 20. 월

전남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 74

모도 MODO

보배섬 진도

2026 보배섬 유채꽃축제

축제 기간 26.4.9.(목) ~ 4. 12.(일)
나들이기간 26.4.13.(월) ~ 4.20.(월)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일원

| 주최 | Jindo | | 주관 | 진도군 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전남남도 | 한국관광공사 | 협찬 | D'LIVE | | 주최·주관 | Jindo | | 후원 | (주)메밀꽃 유채향